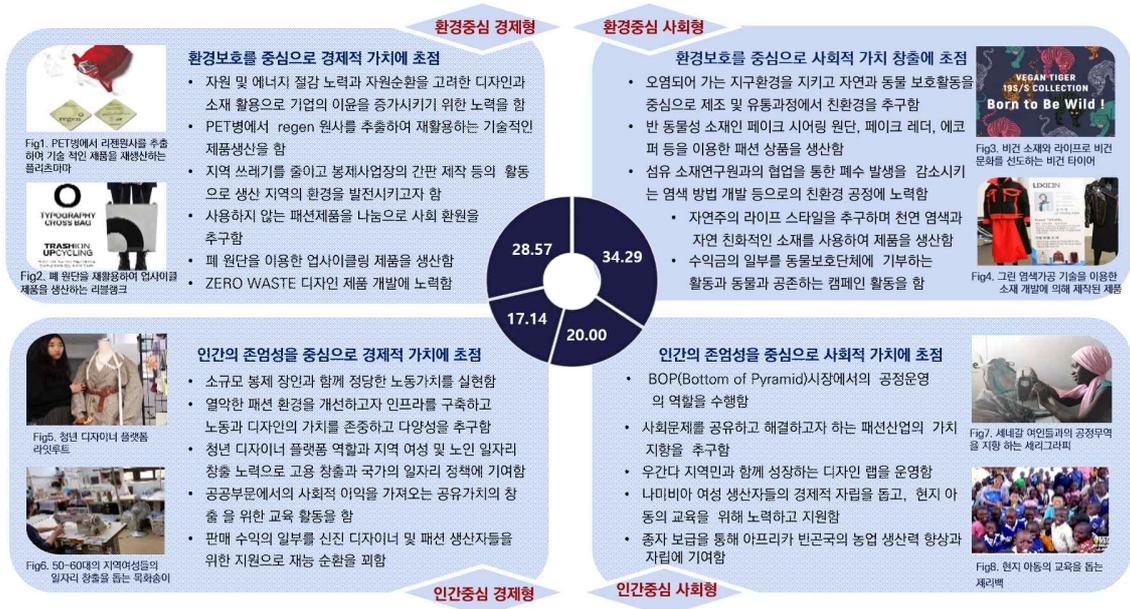


■ 국내 지속가능한 패션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중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 SEF에 입점한 기업 35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사례 유형을 필자가 범주화했습니다. CSV(공유가치창출)의 이론에 근거해서 국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보았어요.

그럼 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을 실천하고 있는 경제형 사례에는 28.57%, 사회형은 34.29%로 총 62.86%로 나타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사례에는 경제형이 17.14%, 사회형이 20.00%로 총 37.14%로 환경보호 중심형이 인간 중심형보다 25.14% 높게 나타났습니다.

- 사례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션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적 환경가치 위주로 지속 가능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패션 기업에서는 주로 사회적 환경가치 위주로 지속 가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전략은 패션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 사회 구조의 형평성, 노동 인권등의 측면보다는 환경 관련한 이슈가 기업 경영전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환경 관련 이슈만으로는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전개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2019 BRT(Business Roundtable)선언과 래리 핑크(Larry Fink)회장의 2020 연례 서한에서

- E(환경:Environment),
- S(사회:Social)
- G(지배구조: Governance)

가 선포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처: diginex ESG>

-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정하고 해당 조건에 의거하여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근 ESG경영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 기업 중 ESG의 지속 가능한 비전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에버레인(Everlane)입니다.



The image shows a photograph of an Everlane retail store on the left, with a sign that says 'EVERLANE'. To the right is a 'Transparent Pricing' infographic. It includes a text block: 'We publish what it costs us to make every one of our products. There are a lot of costs we can't neatly account for - like design, fittings, wear testing, rent on office and retail space - but we believe you deserve to know what goes into making the products you love.' Below this are five categories with icons and prices: MATERIALS (#7490.60), HARDWARE (#4135.65), LABOR (#11376.00), DUTIES (#5474.70), and TRANSPORT (#2073.75).

- 2011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스타트업 에버레인은 제품 소재부터 원부자재, 임가공비, 관세, 운송료 등을 제품마다 적용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브랜드들에서 이와 같은 제품이 어떻게 판매되는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에버레인은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투명한 경영 윤리를 지향하며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방식인 Creative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건 마클이 밀레니엄 세대라 에버레인 제품을 착용했을까요? 영국의 왕자비 메건 마클이 에버레인 제품인 더 데이 마켓 토트백을 착용해서 더욱 사랑을 받았지요!.

하지만 에버레인 제품은 해외 배송이라 한국인들이 자주 애용하기에는 탄소 가스 배출이 높은 면에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중 순환패션(패션 제로 웨이스트, 패션 업사이클링 포함)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예: 레코드, 더 나누기, 사회적경제조직 등..)위주로 하나씩 소개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참고

오명수, 김한나 (2019). 패션관련 사회적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유형 연구

<https://www.diginex.com>

<https://www.everlane.com>